

광양 성황·도이지구 토목공사 5년만에 완료

시, 환지처분 공고...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위해 청산금 납부해야

광양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양시는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후 5년 5개월만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8일 택지개발에 따른 '환지처분'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환지처분은 토지개발사업 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정연하게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절차다.

시는 환지처분 공고 당일 '토지개발사업 변경 및 완료신고'를 지적 관리부서에 제출해 지적공부를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리기간은 약 일주일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환지 등기와 체비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시 성황동 일원(65만4760㎡)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2017년 6월 착공해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6월 18일 토목공사를 완료했다.

청산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내년 11월 20일까지이며, 청산이 완료된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광양시에서 담당 등기소로 환지 등기를 맡길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산금 납부가 요구된다.

또한 체비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광양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거친 이후 매수자 명의로 매수자가 직접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 후 5년 5개월만에 토목공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지난 18일 환지처분을 공고했다. 성황·도이지구 택지단지 전경. <광양시 제공>



BS삼총사 이모티콘 무료 배포

보성군, 오늘 3만5000명 대상

보성군이 BS삼총사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수상 2주년을 기념해 22일 'BS삼총사' 이모티콘(사진) 무료 배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보성군청'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만 5000명에게 이모티콘 16종을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미리 '보성군청' 채널을 추가해 두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다운로드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이모티콘은 16종이며, 사용기간은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다.

보성군 관계자는 "BS삼총사 캐릭터 대상수상 2주년 기념과 보성키위가 키워포목 최초로 지리적표시 제111호로 등록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발효를 융복합 산업으로 키운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준공 발효 원료 표준화·연관산업 육성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지난 18일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과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 전라남도회의장, 정병희 순천시회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승주읍 평정리에 연면적 2264㎡ 규모로 건립됐다. 생산동과 연구·기업지원동 2동으로 총 1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시는 준공식을 기점으로 발효를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시의 특산자원을 활용한 소재개발과 발효 원료의 표준화 및 연관산업 육성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당면과제로 2023년까지 콤바차 제조의 원천기술인 발효박합중균(SCOBY)을 개발해 수입 중균을 대체하고, 중균 분야에 따른 수익 창출도 중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균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발효식품산업 정책개발과 육성은 물론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발효식품 산업이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 호남여성농악단 공연 모습.

구례 '호남여성농악단' 문화재 된다

도 문화재 지정 예고 마쳐...국내 유일 상업성 여성 농악패

구례에 뿌리를 내리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호남여성농악단(단장 유순자)이 전남도 무형 문화재로 재탄생한다.

21일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호남여성농악단이 지난 8월20일자로 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을 마치고, 이날 말 최종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올해 안에 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호남여성농악은 1902년 서울에 세워진 협률사에서 태동했다. 1959년 남원 여성농악단으로 출범해 활동해오다 시대 변천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왔으나, 마지막 상쇠였던 유순자 단장이 맥을 이어왔다. 이후 2012년 구례에서 사단법인 호남여성농악보존회를 설립, 전국에서 100여명에 이르는 단원들이 참여하는 여성 농악으로 발전했다.

호남여성농악은 마을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한 마을 농악단과 달리 상업성을 띤 전문 놀이패에 의한 공연 예술이라는 점에서 다른 농악과는 차이가 있다.

오재질굿과 오방진굿, 풍년굿, 두마치굿, 호허굿으로 어우러진 다섯맛당과 부포놀이, 채상고놀이, 장구놀이, 열두발놀이 등 구경놀이가 현란한 굿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악 명인 유순자 단장의 부포놀이는 여성농악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한편, 구례에는 구례를 신촌마을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잔수농악'이 지난 2010년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돼, 이번 호남여성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역 농악계의 광경을 이루며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보성군 '지방자치발전대상' 행정혁신 최고대상 수상

보성군이 최근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평가한 이번 시상식에서 보성군은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과 지역 특성을 담은 브랜드 시책 600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보성군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장기 방치폐기물 처리 등의 사례에서 군민과 수 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설득 과정을 거쳤고, 관련기관 회의 등을 진행하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전라남도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1세기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민관

거버넌스와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모범적으로 보여 준 사례로 평가받은 '600사업'은 현재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 클린보성600사업, 마을복지 600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군민의 군정 참여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군민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민선8기 슬로건을 '다시 뛰는 보성 3·6·5'로 정하고, 3대 SOC, 600사업, 5대 분야 사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성군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김철우 보성군수가 2022 지방자치발전대상 행정혁신 최고대상 수상패를 들어보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곡성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 5미' 드세요

토란 떡파이·아이스크림·픽미칩 등 관광 자원화 나서

곡성군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요리를 '곡성 디저트 5미(味)'로 선정하고 관광 자원화에 나선다.

곡성 디저트 5미는 토란 만주, 토란 떡파이, 토란 아이스크림, 픽미칩, 토란칩이다. 디저트 5미는 관광객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요리전문가·관광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의를 거쳐 5가지 제품이 선정됐다.

군은 이들 제품에 대한 영상 콘텐츠와 리플릿 등을 통해 곡성 디저트 5미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4월 '참깨매운탕·은어튀김'과 '석곡 흑돼지 석쇠구이', '능이담글탕·백숙', '토란탕', '깨비정식'을 지역을 대표하는 5가지 맛으로 선



곡성군 선정 곡성 디저트 5미(味) 토란 만주, 토란 떡파이, 토란 아이스크림, 픽미칩, 토란칩(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곡성군 제공>

정하고 밀키트로 제작해 캠핑장 등에 배달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곡성 디저트 5미(味)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곡성 디저트 5미(味) 선정이 음식 관광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박동태 기자 pit@kwangju.co.kr

광양 해역에 12t급 신형 구조정 배치

여수해경, 저수심 해역서 신속한 인명구조 최적

여수해양경찰이 신형 연안구조정(S-39)을 광양파출소에 배치해 연안해역 경비를 강화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파출소 연안구조정 전용부두에서 저수심 해역에 특화된 12t급 신형 연안구조정(S-39) 취역식을 가졌다.

신형 연안구조정은 12t급 알루미늄 선체에 길이 11.5m, 폭 3.7m, 흘수 0.6m로 저수심 해역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다. 최신 항해 장비가 탑재돼 최고 속력 35노트(약 65km/h)로 신속한 인명구조에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광양파출소는 광양제철소, 하동화력발전소 등 중요 임해 산업시설이 자리하고 있고, 대형상선 및 위험물 운반 선박 등이 상시 출입항하는 곳으로 해양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다.



여수해경 신형 연안구조정 취역식이 지난 18일 광양파출소 연안구조정 전용부두에서 박제수 해경서장과 파출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박제수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신형 연안구조정 도입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기대된다"면서 "여수해경은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지역화폐 체크카드 발행

광주은행·새마을금고도 가능

여수시 카드형 여수사랑상품권(섬섬여수페이)의 발행 카드사를 3곳으로 확대한다.

섬섬여수페이 카드는 기존 NH농협 체크카드만 가능했으나, 17일부터는 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 폭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발행 카드사가 한 곳에 불과해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는 소비자는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카드 발급 방법은 기존 농협카드 발급 절차와 동일하다. 우선 카드 신청을 원하는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하며,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상품권 앱(chak)을 통해 발급하면 된다.

소비자는 카드사별로 여러 개의 카드를 보유하거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카드 개수에 관계 없이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섬섬여수페이 발행 카드사 확대로 카드형 상품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다양한 업종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